

## 擇窩 許善道 선생님과 大學博物館

朴宗基\*

擇窩 許善道 선생님은 1927년 경남 함천군 가회면에서 출생하시어 1993년 12월 타계하셨다. 선생님은 일찍이 서부 경남의 명문 진주 사범학교를 거쳐 초등학교 교단에 잠시 몸을 담으셨다가, 약관의 나이에 다시 서울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학의 수련을 받고 전문연구자의 길로 인생을 마칠 때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을 온통 인재 양성과 전통문화 보존과 정리에 힘을 쏟으신 분이다. 선생님의 이러한 생애는 그간 선생님이 받아오신 학문의 수련 과정을 더듬어 보면 쉽게 수궁할 수 있다.

선생님은 영남유학의 거목 重齋 金樛 선생님께서 私淑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온축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지니셨다. 또한 대학시절에는 은사이신 斗溪 李丙燾, 東濱 金庠基 선생님께서 엄격한 역사학의 수련을 받으셨다. 선생님의 학문활동은 이와 같이 두 갈래의 큰 학문적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뒷날 선생님의 학문적 자양분이 되었고 또한 학자적 신념과 자부심을 키워 가게 하였던 것이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軍制史와 戰爭史에 일찍부터 남다른 慧眼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 방면에 뚜렷한 연구사적인 족적을 남기셨다. 특히 말년에 연구에 몰두하신 壬辰倭亂에 관한 연구는 패배주의적 사관으로 일색된 일제의 타율성론을 여지없이 뒤엎는 이 방면 研究史의 快事라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군제사·전쟁사 연구의 진전은 선생님의 연구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선생님의 연구는 철저한 문헌 고증에 기초한 탄탄한 실증적 연구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훗날에도 결코 後學들에게 쉽게 貶下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쌓아 올린 학문활동의 또 다른 축은 대학박물관의 위상 제고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 그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일이다. 이러한 점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흔히 세인들에게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다. 선생님을 처음 뵈은 1983년 당시 선생님에 대한 첫인상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전승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신 분으로 필자에게 자리잡혀 있었다. 이제와서 되돌아 보니 실제 그러하셨다. 선생님의 전 생애 가운데 1980년대 이후부터 말년까지는

\* 국민대학교 박물관장

이러한 부분에 뜨거운 열정을 쏟으셨다. 국민대학교 박물관이 1973년에 개관되면서 1989년까지 선생님은 박물관장직을 수행하면서 박물관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놓으셨다.

선생님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셨다. 필자가 국민대학교와 인연을 맺고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인 1983년부터 1987년까지 韓國大學博物館協會 제12대와 13대 회장직을 맡아 대학박물관의 기능을 정상화 하려고 관계법의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古文化』 28·29집에 실린 선생님의 글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使命과 機能」(1986년)을 읽어보면, 한국대학박물관에 대한 선생님의 애정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아마도 대학박물관협회가 자신의 권익옹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던 때의 하나가 바로 이 무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대학박물관의 기능을 유물발굴과 보존 전시에서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그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신 선생님의 공로는 그 누구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십 여년이 지난 오늘날 박물관이 전공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역사와 문화교육의 중요한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선생님의 당시 식견이 새삼스러울 따름이다.

선생님과 박물관과의 공식적인 인연은 육군사관학교 군사박물관의 책임을 맡으신 1960년대 초반이었다. 언젠가 선생님과 강화도 정족산성을 답사한 적이 있었다. 마침 비가 내려 성문에서 필자와 비를 피하는 틈에 선생님께서는 대학시절 두계 선생님과 배를 타고 강화도 답사를 왔는데 그때도 비를 피하여 이곳에서 머물렀던 추억담을 털어놓으셨다. 필자에게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귓가를 맴돌고 있다.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선생님께서 박물관과 인연을 맺은 원초적인 계기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학부시절부터 두계 이병도 선생님 등 여러 은사의 가르침에서 얻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본다. 구체적인 업적으로 남긴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金石學에도 조예가 깊으셨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금석학 강의를 하셨다. 이러한 인연으로 고고학과 사학과에 적지않은 제자를 배출하셨으며, 이것이 뒤에 선생님의 이 방면 활동에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이러한 질긴 인연이 이와같이 선생님의 평생 학술활동의 또 다른 축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본다. 선생님은 이 외에도 1980년 民族文化推進會 企劃委員, 1985년부터 1993년까지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委員, 1991년 國史編纂委員會 委員으로 활동하셨는데, 이러한 사실도 선생님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선생님께서서는 학자에게 필요한 연구와 교육의 두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당신께서는 교육적 사명을 주저없이 택하겠다고 어느날 필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필자의 뇌리에 맴돌고 있다. 선생님은 동행자의 老少를 불문하고 유적답사 여행을 좋아하셨다. 특히 거친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학생들과의 답사여행도 기꺼이 함께 하셨다. 선생님은 언제나 답사지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귀중하게 보존하고 전승하여야 한다

는 뜻을 학생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변으로 당부하신 교육자적 면모를 지니셨다.

한 인간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그가 남긴 글로서 자취를 더듬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 그 부족한 몫은 그 사람이 고심하고 애써왔던 인간적 면모를 더듬어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생님의 대학박물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대학박물관을 박물관답게 제자리 지우려는 각고의 노력, 나아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선생님이 유형의 흔적으로 남기시지 않은 진솔하면서도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다. 이것도 선생님에 대한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오늘도 국민대학교 박물관의 전시실 한 모퉁이를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선생님의 정성이 배인 따뜻한 채취를 느낄 수 있다.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박물관을 이만큼이나 남부끄럽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도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었다. 선생님의 생전의 애쓰신 모습을 새삼 떠올려 본다. 선생님과 함께 같은 학과에서 지내면서 선생님의 품성과 인간적 채취를 듬뿍 느끼면서 생활하여온 지난 10년 간의 세월이 이제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그리움으로 필자에게 다가오고 있다. 옆에서 지켜본 선생님은 학문적 엄격성을 지닌 근엄한 연구자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는 선비의 기개와 가식없는, 넘치는 인간미를 지닌 다정다감한 이웃 동네 어른의 채취를 필자에게 남긴 분이셨다.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이 새삼 그리워진다.



제21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강연회 및 27회 총회. 1984. 10. 2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대회 1985. 12. 11. (왼쪽 두번째 허선도 관장)



국민대학교박물관 제1회 특별기획전 건학·육영이념기념서목전. 1989. 10. 18 (왼쪽 세번째 허선도 관장)